■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황장엽 저, 시대정신, 324쪽)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8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최근「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제목의 저서를 발간하였다.

저자는 작년 7월 외교협회에 월례행사에서 공산주의와 북한의 실상에 관하여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강연한 바 있다.

저자는 김일성대학 총장,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노동당 비서를 역임하고 1997년 2월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였으며, 2005년부터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주의와 결부되어 왜곡된 집단주의 사상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본질상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주의적 집단주의에 의거하여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였으나 냉전을 계기로 참패를 당하였다."

"역사적 사실은 개인주의를 적대시하는 집단주의는 집단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개인이기주의적 독재로 변질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었다. 바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표방한 집단주의적 독재를 대폭 개악하고 극도로 변질시킨 실례는 북한의 세습적인 수령 개인독재에서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독재와의 냉전에서 승리한 개인주의자들은 자만도취하여 집단주의 독재의 패망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으려하지 않고 마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종국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자처하면서 자기의 지도이념을 갱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본주의가 가장 장점으로 자랑하는 경제 분야에서까지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게 되었으며 다시 대두한 폭력적 독재 세력의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경제 건설에서 세계사적 모범을 창조해 놓고서도 최악의 독재 사상인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의 침습을 막는 문제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난관을 겪고 있는 한심한 형편에 있다. 이것은 특히 한국을 자유 조국으로 우러러보며 목숨 걸고 찾아온 우리 탈북자들 속에서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사상 정신적 패배는 종국적인 패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고 피력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재부, 우점, 창발성, 추동력 등 우리 국어사전에 나타나지 않는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 재화, 장점, 창의성, 추진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제1부 민주주의론과 제2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제1부 민주주의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개인적 존재와 집단적 존재가 인간 존

재의 두 측면인 것처럼 이와 결부되어 있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인간 본성의 두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를 말살할 수 없으며 개인주의가 집단주의를 말살할 수 없다."

"개인 중심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자유롭게 발양시키는데 치중하고 집단의 통일적 협조를 홀시한 결과 개인적 존재의 발전과 집단적 존재의 발전의 불균형이 조성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존재의 근본요구, 근본이익은 개인들의 다양한 삶의 요구와 독자성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집단적 존재의 근본요구, 근본이익은 집단의 통일성과 협조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양자를 사회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합시켜 나가는 것은 정치의 올바른 지휘기능에 속한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였으나 지난 시기 역사 발전을 위하여 경이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일대 시련을 겪고 있다. 이것이 개인중심 민주주의의 역사적 제한성의 발로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로부터 개인중심 민주주의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장점을 사회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의심할 바 없다."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문제는 본질상 개인중심 민주주의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집단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요구까지 포괄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그것을 집단주의적 민주주의로 교체하는 혁명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류가 이미 달성한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의 성과를 보존하면서 여기에 집단주의적 민주주의 사상의 우점을 첨가해 나가는 개인중심 민주주의의 계승 발전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비민주주의적인 폭력적 방법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세계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인류의 무궁한 번영 발전을 담보하는 민주주의 지도이념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변함없는 중요한 원칙은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의 욕망 및 창조적 역할과 집단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의 욕망 및 창조적 역할을 해당 시기 현실적인 사회 발전 요구에 부합되게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제2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론에서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이 자본주의 진영과의 냉전에서 패망한 것은 역사적 대 사변이었다. 소련 사회주의의 탄생과 발전 붕괴의 전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그 지도사상인 마르크스주의였던 만큼 소련식 사회주의의 붕괴가 남긴 역사적 교훈을 옳게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옳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고 전제하고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오류와 과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의 기본적인 약점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지적하

고 있다.

"첫째로 마르크스주의는 존재하는 세상만물의 근본 특징을 객관적 존재성 하나에 귀착시키고 주관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운동과 발전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다.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하여 모든 유물론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뿐이며 모든 운동은 물질의 운동으로서 물질의 고유한 존재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인간도 물질적 존재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인 인간에게 생명과 정신과 같은 주관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없는 뚜렷한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둘째로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은 생명과 정신의 본질을 해명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 유물론이 물질의 객관적 존재성만 인정하고 자기 보존의 주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생명을 단백체의 존재 방식으로, 정신을 인간 뇌수에 의하여 반영된 객관 세계의 영상으로 규정하였다.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물질에 자기를 보존하려는 주관적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해명할 수 없다. 생명의 발전을 떠나서 정신의 발생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생명이나 정신은 다 존재의 주관적 속성이다. 존재가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주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서만 생명과 정신의 본질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마르크스주의는 헤겔 변증법의 오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면에서 그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헤겔 변증법의 오류가 관념론적 입장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헤겔의 관념변증법은 사유의 변증법이며 유물변증법은 객관 세계의 변증법이라고 하면서 관념변증법은 유물변증법의 반영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헤겔이 자기의 변증법을 종래의 논리학을 부정하는 새로운 논리학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큰 과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그릇된 사고까지 계승하였던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인류는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끝없이 발전할 것을 요구한다. 끝없는 발전을 지향하는 인간의 삶의 요구야말로 인간의 종국적인 삶의 목적이다. 끝없는 발전 과정에서 행복의 수준을 끝없이 높여나가는 데 인간의 참다운 행복과 보람이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는 인간의 참다운 목적과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인생관이 없다는 비판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사회 발전의 필연적 과정이며 사회 발전의 진보를 의미한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개인주의에 치중한 민주주의 사회체제로서 역사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계급적 지배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민주주의 사회체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의 지위는 학자나 정치가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차지할 수 있는 지위이지 고정

불변한 특권적 지위가 아니다. 그것은 봉건사회에서 타고나는 계급적 특권적 지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개인주의에 치중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로 교체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도 아니며 진보적인 것으로 될 수도 없다. 더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계급적으로 대립시키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적 개인중심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독재체제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사회주의 독재체제로의 이행은 진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퇴보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과 붕괴의 역사적 과정이 실증하여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힘이 약할 때에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노동계급 해방을 지지하고 나선 지식인들을 끌어당기지만 정권을 잡고 독재를 실시하게 되면 이런 지식인들은 계급적 출신 지반이 다르다고 하여 숙청해 버린다. 이 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해방을 간판으로 내걸고 인도주의를 반대하는 이기주의 집단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계급투쟁이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 약육강식하는 동물적 본능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비인간적 주장이다. 이해관계의 차이성에 기초한 투쟁이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정하는 기본원리라면 인류는 발전하기는 고사하고 멸망하였을 것이다. 이해관계의 차이보다도 서로 협력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귀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협조하는 것을 생활의 기본원리로 삼았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계급투쟁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선포하고 무자비한 계급투쟁을 고취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엄중한 죄과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범한 기본 과오로서 다음 세 가지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개인주의를 반대하는 집단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적 존재의 다양한 경제적 요구와 다양한 창조적 역할을 홀시하고 집단적 존재의 통일적인 삶의 요구와 집단적 협조의 역할만을 중시한 것이다.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만 중요시하고 가치법칙의 작용을 홀시한 것이다.

둘째로 개인주의적 경제체제를 집단주의적 경제체제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셋째로 개인주의적 경제 형태와 집단주의적 경제 형태의 대립을 절대화하고 양자의 우점을 결합시키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배척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자신이 제창한 '인간중심 철학'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간중심 철학은 인류가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발전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성과에 자만 도취하여 교만해지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아무리 발전하여도 자만 도취할 때에는 멸망을 면치 못한다. 세계

의 주인으로서 가야할 길은 영원한 발전의 길이며, 발전은 난관을 극복하는 투쟁과 창조적 노력을 통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다.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하면서 창조적 사회적 협조를 끊임없이 강화해 나감으로써만 인류는 영원한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행복하고 보람찬 삶의 수준을 끝없이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간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국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살고 있는 저자가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의 오류와 과오를 비판하고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본서는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것으로 사료된다.(편집실-박창일) 회교